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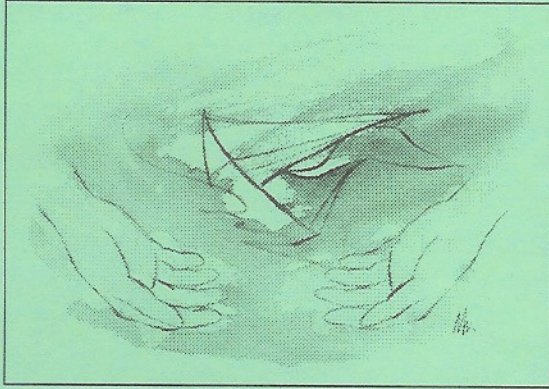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2주일(예수 성심 성월)

제29권 30호(나해) 2009 · 6 · 21

[묵상]



“왜 겹을 네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 ‘사제의 해’ 선포 □

프랑스의 한 촌락 ‘아르스’에서
73년의 생애 중 42년을 본당신부로 살았던
한 성인(聖人)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이다.
1786년 5월 18일에 태어난 성인은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시민혁명의 폭풍 속에서
암울한 소년시절을 보내야 했었다.
교회가 당한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여
한 가닥 도움이 되고자 사제의 꿈을 가지긴 했으나
기초학습과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꿈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신심과 성품을 인정받아
마침내 불가능한 현실을 뚫고 사제품에 올랐다.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
교황성하는 올해 6월 19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한해를 “사제의 해”로 선포하였다.
고해성사를 베풀다 세상을 떠난 성인을 본받아
사제들이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교황님은 매월 첫 목/금요일 미사와 특별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허용하였다.
사제들과 자신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은혜 넘치는 ‘사제의 해’가 되길 기원하며.(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 (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514-1700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성봉출, 이상현 바울리노 김소천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희복 아네스, 신우용 안토니오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장현숙 발바라,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진규인 스테파노,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김민수, 이상현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최남이 데레사, 김기은 요안, 이순 마리아, 이현호 요한, 김시형 시릴로, 홍정숙 엘리사벳, 정태상 바오로, 유춘자 미카엘라, 연옥영혼들 (생)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윤희동 안토니오와 남열 세라피나, 이영진 레오날드, 장숙환 수산나, 박진수 스테파노와 혜경 레나타, 백지자 세레나, 박준형 요셉, 아론 푸투벨릴, 이정훈 안셀모, 최은 도미니카, 유진 대건 안드레아, 유미 울리아, 최영신 프란치스코 부제,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욥기(Job) 38,1,8-11
화답송	◎주님 찬양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바다에 배를 띄워 큰 물에서 장사하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일을 보았도다. 깊은 바다속에서 그 기적을 보았도다.◎ ○말씀 한번 하시니 광풍이 일고, 높다랗게 치솟는 그 물결은 하늘까지 올랐다가 심연까지 내려가, 사람들의 마음은 아승아승 녹았도다.◎ ○곤경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광풍을 승풍으로 가라앉히사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도다.◎ ○잔잔해져 좋아라 날뛰는 그들을 희망의 포구로 이끄셨도다. 자비하심을 중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주님께 감사하라◎
제 2독서	코린토 2서(Corinthians) 5,14-17
복음	◎알렐루야. ○우리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음	마르코(Mark) 4,35-41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2	313
봉헌	368	269,194
성체	352	292,300
파견	394	227

11) 인간의 생명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가톨릭 교리서 2270항>

인간 생명은 잉태(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권리가 주어져서,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의 권리입니다. 생명은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하는 천부적인 권리가기에 인종, 성, 종교 등에 따라 이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생명권은 노인, 어른, 유아 등 생명의 단계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죽음이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인간의 생명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인공유산반대선언문 11-12항 참조)

12) 낙태는 중대한 도덕적인 악이다.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적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원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가톨릭 교리서 2271항>

낙태는 약하고 방어능력이 없고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 이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한 방편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산아제한정책과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조장해 온 탓에 낙태가 중대한 죄악이라는 의식과 양심이 무뎌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낙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58항 참조)◆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 떼를 돌아오게 하신다.”(집회서 15,17; 18,13)

인간의 잣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거센 돌풍은 제자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을 흔들려 깨웠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채시고 바람을 꾸짖으시어 호수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 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거센 돌풍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우면서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실상 제자들과 한 배 안에 같이 자리하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 으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분께 대한 믿음과 확신의 끈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던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주님

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어느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자신 안에 자리하고 계셨던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주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경우가 혹시 없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기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욕에게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이 밀어닥쳤습니다. 그가 감내하기 힘들었던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욥 42,3,6)

그렇습니다. 욕처럼 우리 방식대로 주님을 인식하려는 낡은 신앙의 태도를 이제는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행복과 기쁨 아닙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두려움의 장벽을 헐어내 주십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아버지날 축하드립니다. ♡

오늘은 아버지날(Father's Day)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 마다않고 늘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

◆ 바오로 서간 필사 완성본 제출하십시오.

사도 성 바오로의 해(2008년 6월29일~2009년 6월29일)를
맞아 백삼위 신자들은 지난 1년동안 바오로 서간을 공부하고
필사해왔습니다. 이제 그 **봉헌식을 6월28일(주일) 낮 미사 중**
에 가지러 하오니 필사를 완성하신 분들은 소공동체 소속 구역
의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빈첸시오회 의류 수집 오늘 주일(21일) 마감

- 빈첸시오회의 의류수집이 오늘 주일(21일)로 마감됩니다.
- 모아진 의류는 LA 대교구 빈첸시오회로 보내 남미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백삼위 M.E. 6월 Sharing

- 일시 : 6월26일(금) 오후 7시
- 장소 : 최재은 베드로 & 길숙 요세피나 가정
☎(310)694-4585

◆ 남가주 제30차 남성 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0차 남성 푸르실료에 4명의
형제들이 참가합니다.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7월2일(목)~5일(주일)
- 장소 : 레드랜드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참가자 : 이희수 올리오, 김찬구 요한,
최현찬 안드레아, 김광일 스테파노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보급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
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청년들을 위한 제19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2일(목)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61 Cypress Av.
Riverside, CA 90010)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 참가대상 : 18세~35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 \$180 * 신청 : 이세레나 ☎(562)569-0934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견진성사 증서/기념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 4월 26일 받은 견진성사의 증서와 기념사진을 아직 찾
아가지 않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가기 바랍니다.

◆ 졸업을 축하합니다.

- 졸업 시즌입니다. 본당의 초,중,고,대학 모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빕니다.

◆ 주방과 화장실에 새 Paper Towel(종이수건) 기계 설치

- 손을 씻고 물기를 닦는 경제형 '페이퍼 타월' 머신을 5곳
에 설치했습니다. 종이를 낭비하지 말고 아껴 사용합시다
- 설치장소 : 남녀 화장실 4곳(1,2층)과 주방 1곳
- 사용방법 : 기계 하단, 손이 그려진 곳에 손바닥을 한번 스
쳐 움직여주면 사용할 양만큼의 종이가 밀려 나
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1일(주일) : P.V. 3반(콩나물비빔밥 \$3), 강당에선
백지자 세레나 자매가 칠순을 맞아 요셉회/안나회 형제자
매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 6월28일(주일) : 하버/카슨 1반(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권순봉	권태만	김교복	김기석
	김병학	김우용	김일선	김재영	김정웅	김종문
	김종환	김중훈	김진숙	김찬구	나경흠	노천수
	민소예	민찬기	배기엽	송재훈	안태갑	오태환
	우영주	육재민	이귀란	이귀분	이봉덕	이숙화
	이영석	이영숙	이인석	이일길	이재정	장숙환
	장영진	정규숙	정열모	정해홍	조소영	조윤영
	최의수	최이원	신영웨버	합계 : \$3,605		
미사헌금 : \$2,997						
성전헌금	강덕희	강숙경	권순봉	권태만	김교복	김기석
	김병학	김우용	김일선	김종문	김종환	김찬구
	나경흠	노천수	민소예	민찬기	배기엽	안태갑
	오태환	우영주	육재민	이귀란	이숙화	이영석
	이영숙	이인석	이재정	장숙환	정규숙	정열모
	정해홍	조윤영	최의수	최이원	합계 : \$2,490	
감사헌금 : 이귀분, 바둑동호회						

주일학교 소식

◆ 오늘 주일(21일) 주일학교 / 한국학교 중강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중에 주일학교 종업식이 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미사후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 한국학교 종강식 : 한시간 수업 후 오후 1시부터 성전에서 종강식이 있습니다.

◆ 2009/10 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 1차 등록시기 : 6월 28일(주일)까지
- 2차 등록 시기 : 8월중
 - * 교재 준비를 위해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등록금 : \$100 (1년분)/접수 마감 이후 \$10 추가
 - 둘째:\$80, 셋째:\$60, 넷째이후: 무료 (자모회비는 가정당 \$40)
- 대상 : 유치원~12학년

◆ 여름 성경학교 취소

6월26일(금)~27일(토)에 본당에서 실시하기로 한 여름성경학교가 참가인원이 저조한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서는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에서 참가비를 찾아가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청년들을 위한 제19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2일(목)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61 Cypress Av. Riverside, CA 90010)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 참가대상 : 18세~35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 \$180
- 신청 : 이세레나 ☎(562)569-0934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에콰도르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6일(월)~7월14일(화)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교구 팔마 본당과 공소
- 모집대상 : 의료진과 대학생, 일반 봉사자 *참가비 \$1500
- 지도 : 이영찬 신부
- 주관 : 해외 빈민구제회/가톨릭 의료봉사회
- 문의 : 정동현 마르첼리노☎(213)820-3162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홍안나 328-5772 6/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희 소피아 619-4343 6/13(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6/20(토)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28(주일) 오후 1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저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박영룡 요셉 527-7471 6/19(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안혜진 세레나 530-0357 6/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금)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만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6/12(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6/13(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정훈모 바오로 791-6779 6/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수정 클라라 377-2228 6/12(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허리타 377-3820 6/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반나영 체칠리아 (124)206-2911 6/2(화) 오전 10시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사목서간 - 티모테오 1서 ◎

▶ **티모테오 1서의 주요 내용**: 서간은 인사와 함께 이 편지의 수신자인 주교를 위하여 이단을 거슬러 전승된 신앙을 잘 보호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1,3-10. 18-20; 4, 1-11), 성무를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감독이나 원로, 또는 봉사자들을 임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한다.(3,1-13; 5,17-25) 그러기 위해서 티모테오 자신부터 모든 이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4,12-16), 특정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를 두루 보살펴야함을 강조한다.(5,1-6,2) 서간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을 보겠다.

① **은총과 평화의 인사(1,1-2)**: 바오로 편지의 형식대로 서두에 인사가 나온다. 즉 바오로가 아닌 필자가 바오로의 친서 형식을 빌려 그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바오로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므로, 그의 권위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편지에 쓰는 말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니 그분의 권위를 지닌 말이다. 그리고 나서 은총과 평화를 빈다. 그리스도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평화란 오직 하느님의 은혜와, 용서해주시는 당신의 자비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필자는 그것을 축원하고 있다. 또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강조한다. ② **이단과 복음(1,3-20)**: 사목서간에서 언급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단자들의 신화나 족보 같은 ‘그릇된 가르침’을 배격하는 일이다. 그래서 티모테오에게 이단을 거슬러 지금까지 잘 실천한 신앙의 진리를 보존하라고 권고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세기에 이단자와 거짓교사와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이단자들의 꾀변으로 말미암아 ‘논쟁과 말다툼’이 생기며 이것은 ‘설교의 목표’와 어긋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1,5)이 목적임을 가르친다. 심계명과 같은 율법의 역할은 의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정의를 거역하는 자들, 즉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율법도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오로 사도의 친서에서 보이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긴장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라티아서에서 보듯이 바오로는 친히 그리스도와 율법을 두고 양자택일을 요구하기도 했다. 복음선포자로서의 바오로는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였지만, 그는 자신을 죄인들 중에 첫째가는 죄인으로 고백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박해한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을 하느님의 자비로 여기고 한없이 감사하며, 그분께 찬미를 드린다. 이어 저자는 티모테오가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훌륭한 전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③ **교회의 공적예배(2,1-15)**: 하느님의 영광을 현양하는 교회의 공적 예배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다. 남자들은 분노와 말다툼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며, 여자들은 자신의 옷차림을 금품이 아닌 얌전과 정숙, 선행과 순종으로 치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④ **교회의 직분(3,1-16)**: 교회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에 대해서 언급한다.(티모 1,6-9 참조) 여기에서 감독자, 원로(장로), 및 봉사자의 세 부류로 구성된 교계제도는 바오로의 친서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기틀이 잡혀있다. 감독자와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이단을 배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감독자와 원로들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원로들은 교직자단에 속해 있으나 그 역할은 자세히 서술되지 않았다. 감독자는 사목서간에서 언제나 단수로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로와는 다른 직분일 수도 있으나, 한 번도 함께 언급되지 않은 사실에서 추론하면 이 무렵에는 아직 동일한 직분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원로들은(1티모 5,17) 감독자(1티모 3,5)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봉사자들은 여자들도 포함하여 감독자와 교회 공동체를 돕는 사람들이다. 특히 교회의 자선사업에 관계된 책임을 맡았을 것이며, 그 전에 자격심사와 안수에 의해 임명되었다. 늘 필요한 것은 그 직책에 어울리는 성품이다. ⑤ **교직자들의 사명과 언행(4,12-5,2)**: 교직자들은 말이나 행실, 사랑, 믿음, 순결로써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돼야 하며, 성경낭독과 권면과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은사와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늘 자신을 조심하고 가르친 내용을 잘 살피며,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 형제자매는 친 형제자매에게 하듯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할 것을 권고한다. ⑥ **교회규범(5,3-6,2)**: 과부들에 대하여, 원로들의 보수, 징계절차, 취임식에 대하여, 그리고 노예들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다. ⑦ **다양한 권고(6,3-21)**: 이어 이단과 탐욕에 대하여 경고하고, 교직 수여식 때의 교훈과 재산 관리에 대하여 권고한다. 특히 부(富)가 가져오는 교만과 탐욕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오직 참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서, 나누고 베푸는 선행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다. ⑧ **마지막 권고와 인사(6,20-21)**에서 다시 한 번 티모테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은총의 인사로 편지를 마친다. [◆주임신부]